



특허청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0. 28.(금) 배포즉시	배포 일시	2022. 10. 28.(금)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장 박진환 (042-481-5051)
		담당자	사무관 조현주 (042-481-5896)

이심전심(李心全心) 으로 통하다

- 이인실 특허청장, 직원과 소통을 위한 만찬 열어 -

- 이인실 특허청장은 27일, 이번 달 들어 두 번째로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한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.
 - 이는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소탈한 분위기에서 조직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자는 이 청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.
 - 통상 직급별·성별 등으로 구색을 맞추던 종전 기관장 간담회 형식도 탈피했다.
 - 자원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 푸릇푸릇한 20대 엠제트(MZ)세대부터 50대 고참 선배까지 고루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됐다.
 - 또한, 오찬으로는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저녁식사 초대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.
 - 심사관, 심판관, 정책담당자들은 업무상 애로사항이나 건의·제안 등을 기탄없이 털어놓았고, 이 청장도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화답했다는 후문이다.
- 한편, 이 청장 취임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 후속조치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 투표도 있었다.

- 심사 외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, 집중 심사시간제 도입 등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.
 - 한 참석자는 “그간 많은 설문조사가 있었으나,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담긴 전체 목록을 공지한 적은 처음이었다”며, “매월 조치사항을 업데이트해 점검하는 부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”고 말했다.
 - 다른 직원은 “인상깊은 점은 우리 의견이 소수의 외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”이라며 “이런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지속되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- 이 청장은 그간 대내외 소통에 진심인 행보를 보여 왔고, 조직 내 소수의견도 세심히 살피고 있어 직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.
-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특허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표”라며, “앞으로도 조직과 직원들의 활력을 높여 고품질의 심사·심판 및 지식재산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”고 말했다.



이인실 특허청장(왼쪽 1번째)이 지난 27일 19시 청사광장(대전 서구)에서 직원들과 이심전심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.



간담회 이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